

이번 학기 우리신문은 학부 이후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갈래에서 연구자의 삶을 선택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이번 신문에서는 '고차스핀중력'을 연구하고 있는 조민규(박사 3기) 씨를 만났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유학생 수를 가파르게 끌어올렸던 우리학교는 최근 4년간 내실 부족 속에 타대학 대비 많은 유학생 감소 추세를 겪고 있다. 우리학교의 외국 학생 유치를 위한 외부 전략 현황과 대책을 알아봤다.

대학주보

양캠 총학 공약 '학점지우개' 시작부터 난관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이번달 출범한 양캠 총학생회(총학)가 “서로 협력하겠다”며 ‘학점지우개 제도’ 시행을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교무처 학사지원팀이 해당 제도 도입에 관해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벌써부터 제동이 걸렸다. 양캠 총학은 선거 당시 학점지우개 제도를 통해 5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필수과목을 제외하고 최대 6학점 범위 내에서 기존 성적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점지우개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서울캠 총학은 ‘재수강 제도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인한 성적 보완 기회 제한’을, 국제캠 총학은 ‘국내 주요 대학 가운데 상대적으로 엄격한 학점 부여 방식’을 꼽았다. 이에 더해 기존 ‘학점 포기 제도’가 대상 과목이 폐강됐을 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성적 구제책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점지우개 제도는 폐강 강좌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학점포기 제도와 달리 취득 학점을 제한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학점지우개 제도는 학점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대학 성적의 대외 공신력을 떨어뜨린다”면서 “학생들이 학기 말까지 최선을 다해 성취를 이루려는 학문적 도전 정신과 책임감을 저해하는 등 교육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캠 총학은 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기 동안 꾸준히 본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 준비 단계서부터 본부로부터 학점지우개 관련 우려 사항을 전달 받은 국제캠 정재우(포스트모던 음악학 2020) 총학생회장은 “학사는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안 된다는 의견을 곧바로 수긍한다면 실질적인 발전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에 예정된 소통간담회나 총장님과도 개별적으로 만나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설령 올해 못 하더라도 언젠가는 달성될 수 있게끔 관련 화두를 던지고 계속 이 기조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캠 총학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캠 신창훈(행정학 2021) 총학생회장은 “더 논리적인 근거를 모으고 요구안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들고 찾아갈 것”이라며 “학교와 계속해서 대화해서 어떻게든 설득해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당장 이행할 수 없는 ‘포폴리즘 공약’이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달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그동안의 총학은 학생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뽑아 학교에 요구하면 학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묵묵부답으로 끝나는 식이었다”며 “최소한 안 되는 이유라도 명확히 밝히도록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캠 봄맞이 축제 ‘경희랜드’ 열려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노천극장 일대에서 ‘2026 경희랜드’가 개최됐다. 행사는 노천극장으로 향하는 오르막길과 주변 길목에 늘어선 벚꽃 나무 아래에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프로모션 버스 ▲푸드트럭 ▲학생 버스 ▲야외공연이 진행됐다. (사진=도은오 기자)

유학생 정책, 질적 성장으로 전환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2보】 4년제 735명이 감소했던 학부 유학생 감소 추세가 소폭 반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신문의 보도 이후, 국제처는 유학생 수가 2025학년도 2학기 2,405명을 저점으로 73명이 증가했음을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 시점 양캠 학부 유학생 수는 2,478명으로 집계된다.

국제처 글로벌입학팀은 유학생 수 반등의 주된 배경으로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의 우수인증대학 선정에 힘썼다. 이 제도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교육과정 운영, 학사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입학팀은 “이런 공인 인증 지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원 반등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글로벌교육지원팀 김은정 과장은 “유학생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유학생 정책은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음도 확인됐

다. 김 과장은 “과거에는 유치 규모 자체가 중요했다면 이제 입학생들이 우리학교에서 역량을 키워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글로벌교육지원팀은 지난 1월 『외국인 유학생 역량성장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지난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된 유학생 핵심역량 인증제인 ‘KHU-PASS(쿠패스)’ 제도 역시 역량 강화의 일환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도 이뤄졌다. 학생마다 한국어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학기부터 글쓰기 특강과 OA(한글·엑셀) 특강을 기초와 심화 분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한 번만 수강하면 됐던 인증 시스템도 개편한다. 김 과장은 “단발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기초에서 심화로 이어지는 나선형 구조의 역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장학 제도와 교류 프로그램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기존에는 학년과 무관하게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 시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

으나 1~2학년(최초 수혜자 한정)의 경우 지급액을 80만 원으로 인상했다. 저학년 시기에 한국어를 조기 습득해야 고학년 때 원활한 학사 이수, 해외 연수, 진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학생 대상 FGI(표적집단면접) 설문에서 제기된 “한국인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부족해 소외감을 느낀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25년 하계방학부터 실시한 프로그램도 있다. 유학생이 한국인 학생을 자신의 고향으로 초대하는 ‘Global SDGs Team Project’는 2026년 세계 대학평가(THE Awards Asia) 환경 부문 8개 팀 후보에 오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교육지원팀은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 과장은 “본격적인 유학생 역량 강화 계획을 시도한 두 학기 째 접어든 만큼 완벽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과장은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지난 학기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